

새벽기도의 중요성

작성일 : 2010년 3월 2일 오전6시경

작성자 : 여자 치어 중앙 정하빛

2010년 3월 2일

(이 날은 새벽에 기도한 것만으로는
너무 아쉽고 짧게 느껴져서,
외로워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에 남아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수준대로
하루의 모든 시간이 좌우된다는 것이
가슴 깊이 깨달아 졌고,
새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
온전히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제게 오실수가
없고 오셨다해도 느끼지 못하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로 주님 심정을 알아드리고
정신이 깨어 있을 때에는
즉시 주님이 와주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의 중요성에 대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매일 너희의 몸부림.
수고 노력을 내가 보고 있노라

잘되든 안 되든 늘 나를
느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내 보기에 기쁨이 되는 구나
행해주니 고맙도다

하고자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
절대 낙심 말고 사탄을 대적하고
내게 더 나아오길 원하노라

나를 만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모두들 “내 신랑 예수님~” 이라 부르며
나를 간구할진대 얼마나 나를 부르고
찾고 있느냐

십의 일조의 시간은 기본이요
나를 만나는 최고의 시간은
새벽일 지니라.

이제까지 내가 역사함도,
새벽에 많은 표적의 일들이 일어났었고
하늘 아버지 또한 새벽에 역사 하셨도다.

세상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새벽의 시간.
이 외로운 시간.
나는 너희에게 더 위로 받길 원하노라

나와 대화하자.
나를 위로해다오.
내게 사랑을 고백해다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다

새벽을 깨우는 자.
하루를 승리한 자니라
3시기도 금메달
4시기도 은메달
5시기도 동메달
6시 이후기도 올림픽 본선에만 출전한 자와 같도다.

이외에 3시전에
특별 조건 기도를 한 자들은
엄청나게 큰 왕 금메달을
따 자와 같으니라

나를 만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의 시간을
왜 깨우지 못하는 것이냐.
깨우고자 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너의 정신 가운데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진정으로 있다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니
더 나를 만나는 것을 연습하자.

새벽의 맛을 진정으로 느껴야 한다
새벽시간 나를 만남이
얼마나 기쁘이고 행복인지 느껴야한다

하나의 일처럼 느끼지만 말고
사랑하는 애인과 맛있는 것 먹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나와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새벽에 만나길 원한다

너의 스승. 세상적으로 봤을 땐,
학벌도, 명예도, 재산도,
대단한 것이 어디 있더냐.

이런 여건 가운데서도
지금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심정에 합당한 자였으므로,

특히 기도!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온갖 장애물 환난 뛰어넘으며
특히 새벽에 나를 만났기로,
선생을 통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선생이 이 섭리의 표상이니라.

선생이 이리 된 것처럼
너희도 매일 더 기도하고,
특히 새벽을 깨운다면
지금의 한계를
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나의 재림의 날도 순탄히
모든 것 행할 수 있으리라.

재림의 날. 나를 만날 때에
서먹하게 만나지 않게
지금부터 더 가까워지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지니
생활가운데 늘 대화하자.

나와 각자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꾸나.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자 있을 것이다

늘 사탄이 방해하기로,
쉽지만은 않지...

그러니 더 강인한 마음과 정신으로
꼭 새벽을 깨워야겠다 다짐하고
새벽 못 깨우면
나 죽는다. 지옥 간다.
주님의 신부가 아니다
생각하며 꼭 꼭 깨어나길 원한다

새벽 깨우지 못하면,
후회 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 잠깐의 수면을 위해
귀한 새벽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된다

24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었으니
시간을 잘 배분하여
지혜롭게 시간을 쓰길 원한다

새벽을 깨우고 보다
새벽에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루의 스케줄을 잘 짜서 행하길 원하노라

새벽이다! 새벽!
최고 황금의 시간 새벽.

이 시간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나와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것은
진정으로 이뤄질지니
이 축복의 시간.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가길 원한다

알겠느냐
새벽을 깨워 매일 승리하는
섭리사 신부들이 되길 원한다.
사랑해 안녕.